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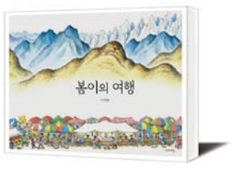
▶가족의 온도(이설아 지음)=입양은 가정이 필요한 아이가 영구적인 가정을 만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입양한 부모와 입양한 아이들이 완전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입양으로 가족이 되는 과정을 자녀에게 숨김없이 나누고 공감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가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아이와 엄마가 성장통을 겪으면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과정을 일러스트와 함께 보여준다. 생각비행. 1만8000원.

▶강아, 너는 누구야?(모니카 바이세나비시엔지음, 발테르 스트림베리 옮김)=책은 할머니와 함께 강으로 간 '나'의 물음으로 시작한다. 할머니는 지리적 정보에서 역사적 사실, 개인의 경험부터 전설과 신화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전한다. 끝 없이 이어지는 강에 대한 이야기가 작가의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2018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어워즈 어린이 책 부문 대상 및 뉴탤런트상 수상작이다. 그레이트북스. 1만4000원.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필리파 피어스 외 지음, 김경희 옮김)=홍역에 걸린 동생을 피해 여름방학 동안 이모네 집에서 머물게 된 톰에게 벌어지는 환상적인 이야기다. 어느 날 밤 열 세 번 울린 괘종시계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달빛이 새어나오는 뒷문을 연 톰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난다. 1959년 카네기상에 빛나는 고전 판타지가 아름다운 그래픽 노블로 새롭게 태어났다. 길벗어린이. 1만6000원.

▶웃음을 선물할게(김이설 외 지음)=일상에 지친 10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웃음을 선사할 짧은 소설집이다. 쉽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기존 단편소설보다 분량이 적은 짧은 소설 10편을 엮었다. 유쾌하고 가슴 찡한 웃음부터 외로움에서 비롯된 씁쓸한 미소까지, 웃음을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했다. 창비. 1만2000원.

▶북한 떡볶이는 빨간 맛? 파란 맛?(박천조 글, 김윤정 그림)='반갑다 사회야' 시리즈 24권으로 출간한 이 책은 북한의 주변이 아닌 진짜 북한을 말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북한의 실제 모습, 북한의 경제와 사회, 문화, 대외 관계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으로 설명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할 아이들에게 가장 사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사계절. 1만3800원.



▶봄이의 여행(이억배 지음)=화가인 저자가 슬픈 분단의 현실 속에서 '꽃 피는 한반도의 꿈'을 꾸고, 그것을 그림책으로 옮겨 놓았다. 꿈의 주인공은 봄이와 할아버지. 2020 국제안데르센상 후보작가가 보여주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야기꽃. 1만5000원. 표성준기자

역사적 전환기 한반도경제 어디로 가는가

이일영의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

세계경제 위기 대변동 시대
한반도 체제혁신 전략 모색

일본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사실 국내 현상만을 보자면,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의견보다는 '극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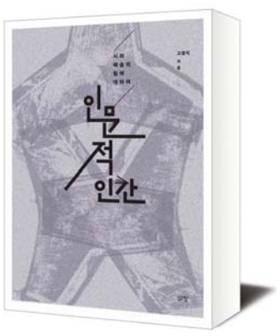
때마침 지난 2009년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를 펴낸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10년 만에 그 후속편으로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를 펴냈다. '뉴노멀'은 세계체제와 경제체제와 과학기술체제의 대변동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 저자는 2008년쯤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진행됐으며, 그러한 변화가 한반도 전체에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진행된 미·중-남·북-국내, 정치·군사-경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체제적 시각을 명료하게 다듬어 자신의 한반도 경제론의 방법과 과제를 정리했다.

한반도경제론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층의 맥락을 고려하고 개별 분과학문을 넘어선 전체 체제를 보는 시야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탄생했다. 이를 통해 각론적 대응책을 넘어선 체제 전체를 혁신하는 현실적 전략을 모색한다. 한반도경제론은 민족경제론과 분단체제론을 계승해 토착의 현실에 작동하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려는 현실주의 진보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1부 '새로운 한반도 체제의 길'에서 최근 동향과 정세에 대해 밀착하면서 한반도경제론의 시각에서 체제혁신의 대안을 제시한다. 2부 '발전모델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혁신'에서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대안으로서의 한반도 경제 모델을 논의했다. 3부 '조직·체제 네트워크경제·국가로의 전환'에서는 새로운 조직원리에 의해 구성된 한반도경제로서의 네트워크경제·국가 개념을 제시했다. 4부 '제도·거버넌스 혼합적 체제와 지역발전'에서는 한반도경제의 법적·제도적 체계와 거버넌스 혁신에 관한 논의를 다뤘다. 이일영 지음. 창비. 2만원. 표성준기자

현존 가치에 질문 던지게 하는 시의 힘

문학평론가 고영직 산문집 '인문적 인간'



'공부하는 날이면 70대 책상 펴고 / 하하호호 웃음 지으며 행복해하네/ 단발머리 소녀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네/ 흰머리 먹칠하고/ 활짝 핀 호박꽃/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나네/ 열심히 배워서/ 70대 밥상 책상처럼/ 요긴하게 쓰이면 좋겠네'. 경북 칠곡 '할매'들이 쓴 시를 모은 시집 '시가 뭐고?'에 실린 '밥상과 책상' 중 일부다. 할머니들은 출세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공부한다. 시의 행간에는 먼저 산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그 의무를 다하려는 할머니들이 있다.

문학평론가 고영직은 이들을 통해 사람이 사는 도리에 생각하게 만드는 문학의 힘을 본다. 생애 처음 한글을 배우고 시를 쓰며 자기 삶을 가꿔가는 모습은 예술이 가능한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 역시 외로움과 산다는 일의 막막함에 지칠 때마다 한 줄의 시와 예술 작품의 덕을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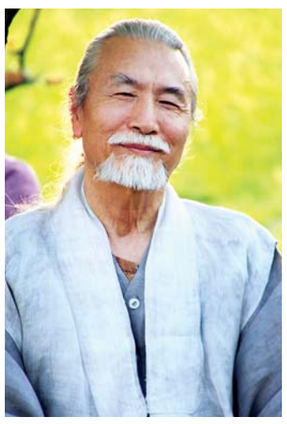
그가 지난 10년 동안 써온 글 중에서 시와 예술의 힘에 관한 산문을 추려 '인문적 인간'을 냈다. 기존의 타율적인 리듬과는 다른 자율적인 리듬을 형성하며 살고자 했던 날들이 녹아있는 글들이 묶였다.

그는 먼저 천상병을 '기인 신화'에서 건져낸다. 천상병의 시를 육체성, 장소, 삶의 시화(詩化)라는 키워드로 읽은 뒤 그의 시가 효율성과 실용성이 숭배되는 사회에서 '쓸모없음의 쓸모'의 시학과 윤리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 지식인 서경식의 '시의 힘'을 읽고 단상을 적은 대목에서는 "국가의 힘과 자본의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상력의 힘"을 강조한다.

그같은 시의 힘이 가닿아야 할 곳은 결국 삶의 터전이다. 대학도, 종교도, 문화예술도, 시민사회도 사회적 패배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안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특히 문화예술이 '그들의 나라'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나라'의 미래상을 위한 성찰과 연대의 정신, 상상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저자는 각자도생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작은 '비빌 언덕'을 위해 '터전'에 대한 상상력을 포기하지 말자고 했다. 우리에겐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삶창. 1만6000원. 진선희기자

저자와 함께 산문집 낸 로천 김대규

"비우고 또 비우면 그 자리에 자유"



로천 김대규 선생이 그림 그리고 소리하고 연주하며 뜀박질하는 '수행'의 일상을 담은 산문집을 냈다.

봄날이 깊어지면 제주 사려니숲길에서 탐방객들을 위해 달마도를 그려주던 사람. 묶은 머리에 하얀 수염을 기른 범상치 않은 인상이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형형한 눈빛'을 먼저 떠올린다.

로천(鷺泉)이란 호를 쓰는 김대규 선생이다. 사군자, 문인화, 수묵산수화를 익힌 그는 그동안 스물두차례 국내외 초대전을 가졌다.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이수자로 2009년 서귀포에서 판소리 다섯마당 눈대목을 선보였고 이듬해엔 제주아트센터에서 수궁가를 완창했다.

그림 그리고, 소리하고, 북치고, 춤추며, 연주하는 그가 '로에피소드'란 제목의 산문집을 냈다. "기억해 보면 후회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위안하고 격려해 뉴 스타트를 하게 된 여정을 사로잡힌 영혼, 너릿재 소년, 늙은이의 기억, 예술보다 고달픈 세상살이, 명상을 만나다 등으로 나눠 실었다.

직업군인서 화가·소리꾼으로
10여년 전 낯선 서귀포에 둥지
마지막 이주로 한라산에 움막

전남 광주가 고향인 그는 맘껏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남들만큼 입는 것이 바람이었던 소년기를 보냈다. 학창시절의 가난은 그를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내의를 얻어입지 않아도 되는' 직업군인으로 이끌었다. 현역 장교 11년, 국방부 행정 5급 사무관 16년 등 청장년 27년을 공직생활에 바쳤다. 곡절 많은 군 생활을 어렵사리 마쳤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남기 위해, 존재감을 갖기 위해 국악과 한국화를 택했다. 만학도가 되어 바지런히 배움을 좇았고 10년간 소요산에 칩거하며 잠자고 운동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를 그림, 서예, 판소리, 고법 등을 익히는 데 썼다.

소요산을 나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귀포에 둥지를 틀었던 그는 지금 한라산 깊은 계곡 작은 움막에서 지낸다. 매일 아침 산악 마라톤을 하고 명상수행도 거르지 않는다. 겨울이면 '인생의 마지막 장과 내생을 여는 곳'인 미얀마 파욱의 수행처로 향한다. 하루하루가 정진하는 삶이다.

로천은 노모의 말년에 빗대 오롯이 혼자있는 거처를 '저만의 요양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입산놀음'의 행복을 숨기지 않았다. 서귀포 정착 10년이던 2014년, 생애 마지막 이주이길 바라며 한라산에 든 그는 "인정도 끊고 세속도 버리고 비우고 또 비우고 홀로 머묾, 그러면 그 빈자리에 자연과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엄. 1만8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축 수상

대통령표창

문영섭
(충선공 17세손)

세계자유민주연맹봉사장

문종해
(충선공 20세손)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 65주년기념 유공조직원으로 선정

대통령표창과 세계자유민주연맹봉사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평문씨 충선공파 헌납공계
제주도 두수파 종친회 회장 문병교 외 종친일동
영길공 친족회 회장 문중근 외 친족일동

축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서기관)

오임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 심 회

축 승진

서 기 관

오임수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도 표선면 이장단
회장 강 기 수 외 강희팔, 김인석, 오용기,
홍승선, 안창언, 조용준, 현경욱, 김용우, 김영순